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침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풍성한 생명

(요 10:10)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1.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풍성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적당히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위협이 오고 고통이 와도 목자의 품 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으면 풍성한 삶은 있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겨우 턱걸이 정도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2.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보증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양이 되고 그의 양이 될 때에 그는 양의 목자가 되시어 양을 돌보시며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3. 다윗이 말하는 풍성한 생명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만족한 삶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살펴봅시다.

(1) 쉴 곳이 풍성하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시 23:2상)

양은 본래 눕지 않는 동물인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눕는다고 합니다. 이 조건은 공포, 긴장, 도발, 배고픔으로부터 자유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쉰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2) 인도하심이 부족하지 않다.

“월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2하)

양은 매우 온순하지만 방향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좋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목자는 철을 따라 풀을 찾아주고 좋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양과 같아서 제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겨우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3) 안전함이 부족하지 않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다”(시 23:4하)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강풍이 몰아치면 모래가 날아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물이 차는 곳이 또 골짜기이므로 홍수가 나면 쓸려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짜기에는 태양빛을 찾기가 어려워서 시인은 그 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곤고함이 와도 목자장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양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강한 신앙은 시험에서 이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골짜기에 내려가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거기에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는 보호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4) 공급하심이 부족하지 않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개선의 잔치상을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날씨가 뜨겁고 건조한 중동지방에서는 기름과 포도주가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5) 천국이 부족하지 않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 23:6하)

여호와의 집은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천국에 가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요 14:2).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성도가 거할 집을 풍성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좇아서 영생을 누리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야 하겠습니다.



2022 하반기 장학생 모집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김승록 장로)는 전국 시민 양성의 일환으로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해당 부서 및 학생들은 아래 서류 구비하여 2022년 7월 31일(주일)까지 장학생을 추천하

여 주시기 바란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은 등록금을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도님들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2022년 7월 17일~7월 31일		
신청 방법	구비서류 완비하여 서울교회 사무국에 제출(담당자: 정승균 집사)		
장학금 구분	일반 장학금	브리스길라 장학금	송암 장학금
추천대상	서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대학생, 지체부자유자 및 생계지원을 요하는 대학생	신학대학교(대학원) 재학생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인 대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직전 학기 학점 평균 B학점 이상), 신앙생활 또는 봉사에 모범인 자		
구비서류	①교구 또는 봉사부서 추천서 ②재학(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 ④자기소개서 (또는 신앙간증문)	①교구 또는 봉사부서 추천서 ②재학(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	①교구 또는 봉사부서 추천서 ②재학(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
선발기준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자 중에서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수여 대상자 최종 선발 (서류 미비시 대상에서 제외).		
지급예정일	2022년 8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 (선발된 장학생은 반드시 찬양예배에 참석하여야 함)		

2022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오늘 영·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및 사랑부 수련회 진행
 유년부, 23일(토) - 24일(주일) / 교회
 초등부, 22일(금) - 23일(토) / 아가페타운

	주제	일시	장소	담당교역자
영·유아부	찾았다, 하나님 나라!	7/16(토) - 17(주일)	교회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찾았다, 하나님 나라!	7/16(토) - 17(주일)	교회	허은 전도사
유년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7/23(토) - 24(주일)	교회	조동수 목사
초등부	교회가 좋아요	7/22(금) - 23(토)	아가페타운	이대원 전도사
중·고등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	7/29(금) - 31(주일)	아가페타운 교회	정기성 전도사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엑소더스	8/12(금) - 13(토)	아가페타운	안용근 목사
사랑부	함께 가는 사랑부	7/16(토) - 17(주일)	교회	전재홍 목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리더훈련 종강

7월 20일(수)에 다락방 리더훈련을 종강한다. 그 후 휴서기를 맞아 다락방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다락방은 9월에 개강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예배위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예배 안내 위원

주일 1, 2, 3부 봉헌 위원을 모집한다.

* 문의 : 채교천 집사 (010-6444-2502)

식당이용 안내

- 배식 시작 : 오전 11시
- 배식 종료 : 오후 1시 10분
- 모든 식기 반납 : 오후 1시 25분

* 잔반을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설거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남을 배려하는 서울교회 교인들이 됩시다.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교회가 좋아요



송미령 권사
(초등부 부장)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초등부는 이대원 전도사님과 11분의 선생님, 재적 학생 40명(출석 32명)이 주일 11시 601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3월까지 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4월부터 겨우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책상에 앉드리다시피 앉아서 유튜브를 보듯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애타게 기도하는 저희 음성엔 좋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초등부 회장 부회장으로 섬기는 아이들을 통해서입니다. "학생 자치회를 만들어 모든 학생이 1학생 1부서 활동을 한다"는 원칙으로 예배 준비부, 새가족부, 찬양부, 헌금부, 행사부를 만들고 각 부서마다 4, 5, 6학년이 고루 섞여 자치적으로 부서 활동을 하기로 정하게 했습니다.

이제 예배 준비부는 10:30에 와서 이름표와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찬양부는 준비 찬양과 율동 찬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새가족,

헌금, 행사부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몇 주 전 축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을 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 초등부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7/22(금)-7/23(토) '교회가 좋아요' (마 16:18)라는 주제로 아가페타운에서 여름성경 학교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친구들과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교회 분쟁의 어두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가페타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씀과 찬양, 몸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배우면서 어두운 기억들이 씻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뜨거운 날씨에 수고를 자청하신 집사님들의 맛난 음식이 즐거움을 더하겠지요.

주님, '내 사랑 서울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안전하고 은혜 넘치는 성경학교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서울성경대학을 마치고

성경대학을 통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순례를 마치고

채교천 집사
(성경대학 부감)



성경대학 마태복음 반 종강 후

서울교회 영적 교육의 자랑 가운데 하나인 성경대학이 오랜 팬데믹의 안타까움을 지나며 출애굽기 반 (2022. 5.17-7.5/매주 화요일 10:30-12:00 강사:안용곤 목사님)과 마태복음 반(2022. 5.19-7.7/매주 목요일 10:30-12:00 강사:조동수 목사님)으로 감격의 출발을 하였습니다. 총 8강에 걸쳐서 진행된 수업은 근래에 들어 보기 드문 열기로 가득한 영적 순례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성실한 수업 준비와 평소 가지고 있던 풍부한 성경 지식의 전달로 수업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서로의 신앙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였으며 또 그동안 묵혀 두었던 성경 말씀의 궁금한 질문들이 쏟아지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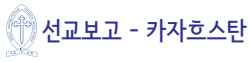
두 분 목사님의 충실한 답변으로 은혜와 활기가 넘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번 주어진 시간을 30분 이상이나 초과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열기가 넘쳤습니다). 그 뜨거움이 교회 식당에서의 식사 교제 시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각자의 믿음이 배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지고 성경대학을 향하는 발걸음 또한 가볍고 빨라졌습니다.

화요일에는 영적 종이었던 우리가 영적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감격이 3,5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목요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영적 체험의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의 기쁨도 함께 누렸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빛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풀들과 나뭇잎들은 그 빛 모두를 '포집'하여 생명을 위하여 일하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며 상생의 공유를 깨닫게도 합니다. 매시간의 말씀묵상과 그를 통한 기도가 '포집'되어 거룩하라 하신 그 순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하반기 성경대학에서는 더 많은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만나 말씀의 성찬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순례자를 통해 2022 상반기 선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온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레멧스즈 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든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곳 카자흐스탄은 지난 1월에 일어났던 반정부 소요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에, 이웃 나라들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 현재 그로 인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물가가 거의 20~30% 이상 올라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지인들 말로는 이웃 나라들의 전쟁으로 인해 생김 어려움이기에 대체로 국민들이 큰 불만 없이 참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도시를 둘러보면 시장 주변에는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도로 밑에는 노숙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길거리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 국민들도 전세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조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고 그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함께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매일 아침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고, 고난 주간을 거쳐 부활절에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찬양과 율동, 악기 연주 등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작은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활절을 맞아 이곳 정부 기관(종교성)에서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를 포함해 6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4명으로 이루어진 여성 중창팀이 참여하여 카자어로 찬양 3곡을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러시아어로 찬양을 불렀는데 저희 교회만 카자어로 찬양을 불렀서 더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

다.

다음으로는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야외 행사를 해 오지 못했는데, 지난 3월 중순 나우르즈(무슬림들의 새해)를 기점으로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해제를 선포함으로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단체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카자 유목 민족의 후예들답게 해가 내리쬐고, 잠조차 무성한 들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맨바닥에 '다스타르한(식탁보)'만 깔고 준비한 음식들을 펼쳐놓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남성들이 숯불을 피우고 준비해 온 고기를 팍을 뽀뽀 흘리며 구워 대접하는 등 소박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어디나 그렇듯 예배나 모임에는 잘 안 나와도 이런 모임에는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마울 뿐입니다. 이번에도 '굴름'과 '알미르'라는 두 학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 성경공부나 주일예배에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야외 모임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들고 집을 나르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임에도 얼마나 즐겁게 참석하는지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에도 참석 의사를 밝히고 기차표도 미리 다 사 놓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사역 계획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소식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저희는 예배 처소와 교육문화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며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7월 4일(월)-9일(토)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캅차가이'라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기차와 버스로 23시간이 걸리는 곳에 30여 명이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이 안전하고 수련회 기간에 말씀,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그리고 힘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 '엘비라' 아주머니는 대장암 투병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반신마비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엇그제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곳에서 더 나은 치료와 돌봄을 받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아이나즈' 청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생활하며, 교회에서는 청년부 리더와 찬양팀 싱어 및 반주자로 섬기며 그밖에 교회 일에 늘 헌신하는 너무나 귀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췌장염'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며 자주 통증을 호소해 왔는데, 최근 들어 더 심하게 아프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병원의 진단이나 처방 및 치료가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라 난감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를 위로해 주시고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될 길도 열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저희 부부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전파와 영혼구원 및 제자양육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와 떨어져 먼 이국땅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자녀(수빈·민석)를 늘 지켜주시고, 신앙생활과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양재성 선교사 · 이현주 선교사



선교보교 - 말라위



말라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젊은 교회' 완공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말라위에서 사랑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구촌이 격랑의 한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이 큰 어려움 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웃지도 못할 일 하나가 있습니다. 두어 달 전에 유튜브에 말라위가 대한민국에 편입이 되고 싶어 심지어 국기에 태극문양을 첨가하려고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영상이 한동안 떠돌아 다녔습니다. 여러 지인들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리둥절하여 알아보니 예상대로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동기로 이런 영상을 제작 배포했을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말라위가 국기를 바꿀 정도로 대한민국을 흠모하니 우리가 마땅히 돕고 소중히 여겨야 할 나라와 국민이 아니겠나며 모금이나 투자를 유치하려는 사기집단의 홍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하고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 이런 가짜뉴스로도 수모를 당해야 하고 돈과 권력으로 영혼을 갈취하려는 이슬람 세력을 비롯해 구원과, 박옥수 집단 등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의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신 25:17-18).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강대국 사이의 이권경쟁으로 인한 냉전체제로의 회귀 현상 등 지구촌 전체가 겪는 몸살에 안 그래도 약하다 약한 말라위가 처한 현실에 걱정에 앞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나마 일 년에 한 번 짓는 옥수수 농사로 온 가족이 연명해야 하는데 올해 옥수수 농사는 기후 변화 탓인지 예년 수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더욱 암담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사역은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 주일에는 마칸디 교도소의 수형자 54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고린도후서 5장을 본문으로 성경암송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지구촌의 가장 낮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매일 새벽마다 찬양과 말씀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하

는 천국공동체의 열기에 한 번씩 연습하는 무기력감을 떨치고 새 힘을 연습합니다. 올해 들어 새로 급식을 시작하게 된 남부지역의 초등학교 두 곳(Nanjiwa, Chinyama)과 중부의 치팡가(Chipanga) 초등학교가 추가되어 이제 29개의 초등학교와 140여 개의 유아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 유엔 난민촌에 사는 어린이들과 전국의 교도소에 복역 중인 노약자 및 환자 수용자들을 포함한 55,000여 명에게 맞고 따뜻한 영양식인 치콘디(사랑) 팔라(죽)으로 매일 기쁨과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날로 인상되는 곡물 가격과 심지어 사재기로 인한 품귀현상까지 겹치면서 급식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하며 걱정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와 팔이 짧아졌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액수의 후원금을 보내 주시며 믿음 없음을 나무라십니다.

올해로 아프리카 사역에 임한 지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시작하여 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낸 터라 날이 갈수록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이 애절해집니다. 동시에 과연 언제까지 외국에서 도래한 기금에 의존된 복음전도와 구제사역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0년 1월 한국기독교실업인협회의 회장단과 화합을 통하여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의 현지 실업인들에게 각 방면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선교 대상국이 현지인 교회들의 자립을 꾀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미래의 지구촌 선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말라위 안에 몇몇 곳에서 기독교실업인들의 모임이 태동되고 있고 미국 및 한국의 기독교실업인들의 모임체와 ‘자매결연’을 맺어보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님들을 보내 주셔서 현재 말라위 남부와 중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의 제분야를 함께 돌보게 되었기에 그 일도 가능하게 된 것이라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라위 교회와 교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인재를 지금부터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던 차에 현지인 두 분이 방문하였습니다. 약 6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밀롱가 기술전문대학의 학장과 지역총장 이 두분의 간곡한 호소와 마침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김종하 장로님께서 기탁하신 예배당 건축지정헌금을 보관하고 있던 터라 평일에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용도 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주일에는 400여 명의 학생들을 주대상으로 ‘젊은 교회’가 개척되어 미래의 믿음의 지도자 양성에 쓰이게 될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폭 30미터, 깊이 17미터에 이르는 150여 평짜리 건물 신축공사가 4월 초순에 시작되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6월 17일부로 완공되었습니다.

지구 남반부에 위치한 말라위는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물이 얼지는 않아도 제법 쌀쌀하고 청명한 하늘 아래서 맑고 시원한 공기를 모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고정찬 장로님 부부와 최근 미군 군목사역에서 은퇴하신 후 합류하신 박세우 목사님 내외분께서 여러분들께 사랑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은택 선교사는 더 알찬 선교사역을 위해 현재 한국에서 의료계통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련다’는 누군가의 다짐과 같이 올 우기철 기간에 7,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말라위에서
김용진 선교사 올림



부활절 주일에 세례 받는 수형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1. 안디옥열방교회 소개

국내 대 무슬림 전담 교회로서 안디옥열방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한 채로 살아가는 국내로 입국한 터키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 근로자들을 향해 주일예배를 포함해서 평일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세례받은 무슬림 개종자와 관심자들 20여 명만이 모여서 대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비대면 매체를 통해서(ZOOM) 평일 성경 공부, 한글 공부, 기도회 등으로 줄곧 모이고 있습니다.

2. 안디옥열방교회 사역 보고

지금까지의 저희 사역은 국내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터키어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서 2007년부터 의정부 지역에 안디옥열방교회를 개척하여 이를 통해서

줄곧 선교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 주일 출석 인원은 총 20여 명이며, 주로 터키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세례를 받아 개종한 사람은 총 56명이며, 대부분은 추방이라는 비자율적 출국을 통해 귀국했으며 현재는 이 중 7명이 개인적으로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디옥열방교회 기도 제목

1. 교회에 출석하던 터키 '마무트'형제가 신장 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교회 내 모든 터키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을 더욱 사모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2.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느슨해지고 풀리면서 향후 지역 교회와의 연합예배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소서.
3. 현재 우리 세례받은 형제들과의 줌

(ZOOM)매체를 통해 진행 중인 수요기도회(오후 8시-9시)와 터키 관심자 모두를 위한 토요일 한국말 공부 시간(오후 8시-9시)을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4. 안디옥열방교회의 자비량 선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 형제들과 함께 자전의 방법을 발견하고 실천에 옮기게 하여 주소서.

5. 교회 내 현지 터키 형제들 가운데 리더십으로 양육 중인 '이제트'와 '하산'형제가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6. 터키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역자들을 더 보내 주소서.

7. 주일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김종일 선교사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참석하는 모든 터키 관심자들이 구원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 하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교회에서 마무트형제와 함께 6월 주일 예배 모습 (왼 안이 이제트와 하산 형제)

동정

- 개업 : 9교구 신항범 집사 · 김민희 집사
버블맨24 셀프발래방 하남스카이폴리스점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135번길
스카이폴리스 나동166호
- 식사 제공 : 5교구 홍동기 성도 · 조정옥 권사
홍석현 집사
노영환 성도 · 홍은경 집사
노정진 노규빈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18일	월	잠 14-16		출 33-38	
7월19일	화	잠 17-19		출 39-40, 레 1:1-5:13	
7월20일	수	잠 20:1-22:16		레 5:14-10:20	
7월21일	목	잠 22:17-24:34		레 11-15	
7월22일	금	잠 25-28		레 16-22	
7월23일	토	잠 29-31		레 23-27	
7월24일	주일	전 1-6		민 1-3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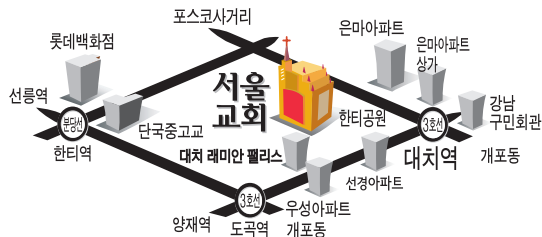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장마철에 영육간에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2. 23일(토)-24일(주일) 유년부, 22일(금)-22일(토)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3.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잘 방역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경제 위기로부터 지켜 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일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